교육칼럼



박주정
한국교원대학교 연구교수

엄마의 허벅지

신실한 교인이셨던 어머니는 몇 해 전에 돌아가셨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곁에 계실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어머니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혼자 사셨다.

어린 시절, 가끔 열마을 교회 목사님께서 집에 오셨다. 그런데 어머니는 목사님이 오시면 어디론가 숨기 바빴다. 어떤 때는 장독대에 있는 큰 항아리 뒤에 숨기도 했다. 어린 나는 이 광경을 보면서 어머니가 못마땅하고 미웠다.

하루는 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엄마, 교회 안 간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렇게 숨어요?"

"좋은 일이단다. 내가 마음의 준비를 못해서 그렇지."

그 후 어머니께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셨다. 예배를 드리는 날은 남보다 먼저 교회에 가서 기도드렸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시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셨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하셨다.

"너만 하나님 믿고 교회에 다니면, 나는 죽어도 소원이 없겠다."

장학사 시절의 일이다. 어느 해 여름방학 때쯤이다.

교육청에서 피서 이야기를 하다가 고향인 고흥 바닷가도 거론되었다.

내 차에 장학관님 부부를 모시고 세 사람이 고향집으로 갔다. 바닷가 마을에 있는 우리 집은 맨 위쪽의 허름한 조가집이었다. 어머니께 내려간다는 말도 없이 불쑥 찾아갔다. 외롭게 혼자 사시다가 자식이 찾아갔으니 얼마나 반갑겠는가! 장학관님을 소개했더니, "이 자식아, 이렇게 귀중한 분들을 모시고 오려면 사전에 귀띔이나 좀 하지."

옛날 말에 여름 손님은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그만큼 힘들고 귀찮다는 말이다.

어머니는 내게 귓속말로 "손님들 모시고 바닷가에 가서 구경을 하고 있어라. 내가 열른 바다에 갔다 올게."라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바로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셨다. 옷을 갈아입고, 장화를 신고, 옆에 바구니를 들고, 물질을 하러 가셨다.

우리도 집에 있기가 답답해서 바닷가로 나갔다. 바닷가에 갔더니, 저쪽 갯벌에서 열심히 뭔가를 캐고 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우리 일행은 소나무 그늘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저쪽 갯벌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우리 쪽 바위 밑에 오셔서 뭔가를 잡는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바위 밑에서 일하던 어머니가 한 곳에 너무 오래 있는 것 같았다.

"어머니, 우리 여기 있어요. 이제 그만하고 나오셔요."

어머니가 갯벌에서 나오셨다. 바구니에는 낙지, 소라, 문어까지 가득이었다. 장학관 사모님은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감탄했다.

"와 어머니, 실력이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안 하셨다.

차 뒤에 어머니를 태우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다. 장학관님이 급히 말했다.

"박 장학사, 잘껏 잘껏, 차 스톱."

차를 세우고 뒤로 가봤더니 차 바닥에 붉은 피가 흥건했고 어머니 옷에서는 계속 흘러나왔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쓰러지셨다. 급히 읍내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전복을 채취하다가 날카로운 바위에 허벅지 살이 한 뼘도 넘게 찢어지는 상처를 입으셨다. 오랫동안 바위를 붙잡고 있을 때 그때 아마 사고가 났던 모양이다.

"조금만 늦었어도 과다출혈로 위험할 뻔했다."고 간호사가 말했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후 장학관님 내외분은 꼬박 3일 동안을 병원에서 함께 간호하면서 지냈다. 피서철에 피서는 저 멀리 피해 가버린 것이다. 사모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어머니는 퇴원하셨다.

장학관님은 우리 집을 다녀온 후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다. '출중한 어머니 밑에 출중한 자식이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윗분으로서 항상 따뜻하게 대해주셨다. 광주 교육계에서 후배들의 존경을 많이 받으셨다.

이종현 전 광주시봉부교육지원정 교육장님이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미션리 구독 및 광고 문의
T. 062)367-9109 F. 062)367-9108

목회산책

사울과 사울

이름이 사람의 품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봅니다. 특히 성경에 언급된 이름들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대략 성품이나 운명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요즘에도 참 중요합니다. 좋은 이름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게 해 줍니다. 그리 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성경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명 등장하고, 신약성경에서도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활동이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구약과 신약에서 두드러진 활동을 했던 두 사람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울은 역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고, 신약의 대표는 후일에 이름을 바울로 바꾼 사울입니다.

이 둘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은 퍽 대조되는 삶을 살다간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사울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마친 삶을 살았고, 신약의 사울은 육체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삶을 마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과도기에 초대 왕이 된 사울은 무적이나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진 권력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고 그를 타락시키는 흉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왕이면서도 일생동안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만 잡으러 다니다가 기구한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처음의 은혜를 망각한 채,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는 인간적인 욕심과 질투에 사로잡혀 결국 영적인 이불 속으로 추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권력이나 재물은 그것을 다스릴 만한 사람에게 있어야 바르게 사용될 수 있지, 그것들의 노예가 될 만한 인격의 소유자에게는 오히려 자신을 망치는 흉기로 변하게 됩니다.

반면에 신약성경의 사울은 사울왕과 정반대의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교만하기도 하고 엘리트 의식을 가졌던 혈기 방자한 청년이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나,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만 해도 사울은 살기가 등등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 회심하여 이름을 바울로 바꾸고 전심으로 주만 위해 성령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지식과 지위를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종으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바울의 뜻은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 자신을 높였던 데 반해 바울은 자신을 낮추는 데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후 20년이 경과한 후에 쓴 고린도전서에서는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하더니, 3년 후에 쓴 에베소서에서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년에 쓴 디모데전서에서는 "죄인 중의 괴수"라고 고백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겸손해져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의 삶에서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존 웨슬리는 말하기를 모든 덕의 기초는 "겸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은 제자가 세상의 제일 좋은 덕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에 그것은 "겸손"이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도 "둘째도 겸손이다." 그러면 셋째는 무엇입니까 하니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겸손"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존귀하게도 하고 패망하게도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 대신 겸손을 구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왜 겸손하기가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인간의 깊이 타락된 본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엎드렸던 바울의 영성이 아쉽고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겸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두 사울의 엇갈린 발자취를 돌아보며, 날마다 타락된 본성을 죽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임 석 인 목사
광주크리스찬아카데미대표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자녀를 위한 매일기도 9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약4:11)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동일한 사랑 안에서 저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처럼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게 하옵소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틀렸다고 비판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을 인정하고 너그럽게 용납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

주님의 성품이 저희 자녀들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교만한 옛사람의 모습은 날마다 희미해져 가게 하시고, 예수 향기를 풍기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지는 위 글을 펜엔굿과 협의를 거쳐 연재한다.(펜엔굿 생명의말씀사 / 박은주 지음)

